

“더 깊은 감사”

(하박국 3:17-19)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생명을 찾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된 것, 생명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걸어온 우리 인생의 얼룩진 과거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새로운 신분, status 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도,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편지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골 3:15b)”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전 5:18)”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살아있으면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불행하게도 감사는 점점 사라져가고, 불평과 원망, 내 이익을 내세우는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정한 감사, 깊은 감사의 삶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1)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많은 경우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병이 나았을 때, 사업이 잘 될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도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분명한데도 감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 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아와 고침받은 열명의 한센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침 받은 10 명 가운데 몇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한사람, 유대인들이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 여년 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이러한 기초적인 감사에서 한걸음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특별한 일,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일상적인 삶 속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66 번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트럭과 부딪치는 큰 사고가 나서 자동차는 전파되었는데, 나는 기적같이 다치지 않고 살아났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66 번 도로를 수십년 운전하고 다녔는데, 한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지 않은 것보다 더 감사한 일입니다.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새날을 맞이하게 된 것 감사한 일입니다.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보면서, 사랑하는 손자, 자녀들이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일상이 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야 우리는 그 일상,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일상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일상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민하게 깨닫고,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찾으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깃들 틈새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 이 같은 감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더 깊은 감사의 삶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고난속에서도, 아픔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감사가 감사의 원인이 있는 "Because of, ...때문에"의 감사라면, 이 감사는 "In spite of, 어찌어찌함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속에서 하박국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없고, 없어도 하박국은 주님 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겠다고 외칩니다.

이 같은 감사의 삶을 위해선 적어도 두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순간만을 보지 말고, 내 삶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해 전 세상을 떠나신 송원롤 장로님께서 병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며칠을 함께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서는 암으로 고통 중에 계신 이 시간에도 왜 당신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지를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은 내 일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한데, 이 점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고. 고통의 순간에 사로잡히시지 않으시고, 평생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셨습니다.

더 깊은 감사의 삶을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난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고난의 원인이나 의미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심술쟁이가 아니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고난도 주님 안에서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깊은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 감사의 샘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깊이 파서 감사의 샘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아니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다시 찾으십시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속회자료]

- 찬 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430 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대표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 말씀읽기 히브리서 10:19-25, 32-36 절을 읽습니다.
- 말씀묵상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0 분)
- 말씀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 말씀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 이내)
1.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2. 성경 속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깊은 감사, 고난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3. 어떤 의미에서 감사는 행복한 삶을 위한 주님의 처방입니까?
 4. 어떻게 하면 우리는 깊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찬 송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305 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주기도문